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CNBC: 미 CEO 30명, 비즈니스에서 두려워하는 것은?
- YahooFinance: 연준, 이번 주 금리 동결…이란 위기가 속에서
- WSJ: 연준 파월 의장, 연준을 떠날까, 머무를까?

[중동 위기]
- YahooFinance: 이란, “호르무즈 개방하고 핵 추후 진행” 제안해
- Bloomberg: 미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 항로 계속 중단

[오일]
- YahooFinance: 골드만삭스, “브렌트유 올해 4분기 90달러로 상향 조정”

[뉴욕시]
- Bloomberg: JFK와 맨해튼 간에 에어 택시 시험 운항

[미중간 선거]
- TheEconomist: 민주당, 올해 11월 중간선거 해볼 만해...히원은 이겨

[주택]
- CNBC: 주택 임대 시장은 임차인 위주로 바뀌고 있다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CNBC: United 항공사, 아메리칸 항공에 합병 제의…거부당해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CNBC: We spoke to over 30 CEOs and business leaders. Here’s what worries them most
미 CEO 30명, 비즈니스에서 두려워하는 것은?

<u>중장기 계획 폐기와 상시 대응 체제</u>
- 기업들이 전통적인 3~5년 단위 계획을 버리고 상시 비상 계획 체제로 전환했다.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재고 확보와 공급망 구축이 핵심 전략이 됐다.

<u>물류비 상승과 인플레이션 가속</u>
- 해상 물류 혼란으로 물류비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제조사들은 고비용 항공 운송을 늘리는 등 유연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. 이러한 비용 부담은 점차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추세다.

<u>중산층 소비자의 가성비 위주 재편</u>
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중산층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. 소비자들은 상품의 다양성이나 배송 속도보다 저렴한 가격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.

AI 등장에 따른 수익 모델 위기

- AI 기술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. 사용자 수에 따라 요금 부과하던 기존 방식은 AI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앞으로는 성과나 결과물 중심의 요금 부과 모델로 재편될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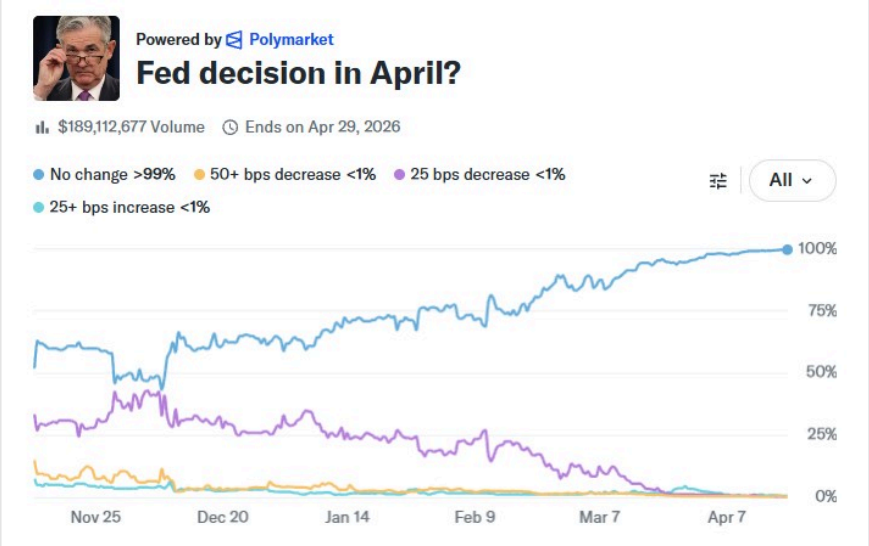
사이버 보안과 신뢰의 가치

- AI를 악용한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이 경영의 최우선 순위가 됐다.

기사

YahooFinance: Fed expected to stand pat this week amid ongoing uncertainty from Iran conflict
연준, 이번 주 금리 동결…이란 위가 속에서

-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연준이 이번 주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.
- 이와 관련 전직 연준 인사들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변동성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. 특히 고유가 현상이 가을까지 이어지며 공급망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.
- 현재까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으나, 아직 일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으로까지 전이되지는 않은 상태다. 연준은 전쟁의 전개 양상과 경제적 파급력을 지켜보며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.



기사

WSJ: Fed Chair Powell Confronts His Final Big Decision: Stay or Go
연준 파월 의장, 연준을 떠날까, 머무를까?

- 연방 법무부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연준 리모델링 비용 관련 형사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.
- 파월 의장이 2026년 의장 임기 종료 후 2028년까지 이사직을 유지할지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인사권 행사에 직접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.
- 통상 연준 의장은 임기 후 물러나는 것이 관례이나, 연준의 독립성 수호를 위해 파월이 이사직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.

기사

[중동 위기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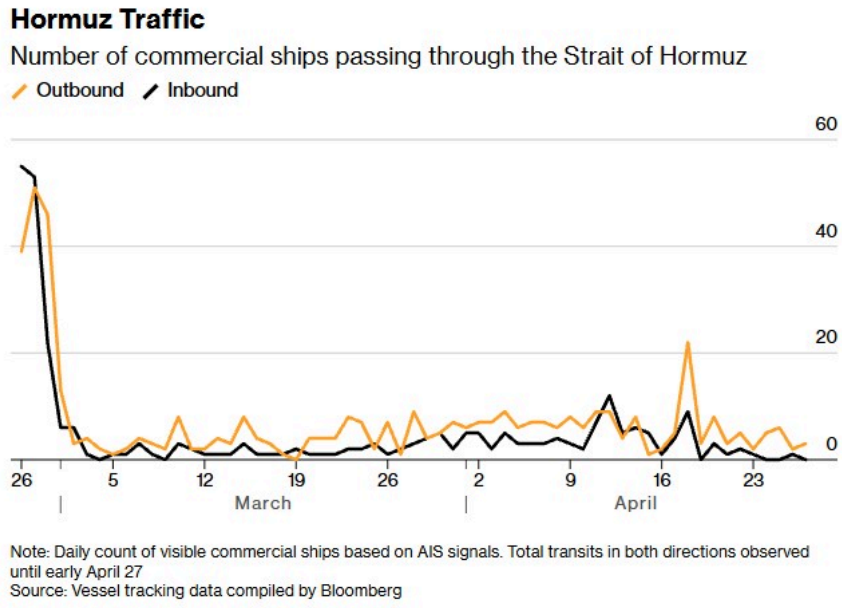
YahooFinance: Iran Offers Deal to US to Reopen Strait and Delay Nuclear Talks, Axios Says
이란, "호르무즈 개방하고 핵 추후 진행" 제안해

-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전쟁 종식을 위해 핵 협상을 뒤로 미루는 내용의 새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언론 매체 Axios가 보도했다.
-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전달된 이 안은 휴전 연장과 영구 종전을 우선 논의하고, 미국의 해협 봉쇄가 풀린 뒤에 핵 협상을 진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.
- 백악관은 이 제안을 전달받았으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. 백악관 대변인은 "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국민의 이익과 이란의 핵 보유 저지를 최우선으로 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기사

Bloomberg: Dual Hormuz Blockade Cuts Ship Transits to Near Zero
미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 항로 계속 중단

- 미국과 이란의 상호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 항로가 사실상 폐쇄되었다. 오늘 오전 월요일 이란에 소속된 선박 3척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가는 것이 목격되었으나 일반적인 국제 해운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.
- 평화 회담 재개 시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며 원유와 연료 공급이 차단되었고, 이로 인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거래되고 있다.
- 중동 전쟁발 공급망 마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다.



기사

[오일]

YahooFinance: Goldman hikes oil forecasts again as 'Hormuz shock' builds
골드만삭스, “브렌트유 올해 4분기 90달러로 상향 조정”

- 골드만삭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심각한 재고 감소로 유가 전망치를 상향했다. 브렌트유의 4분기 전망치는 기존 80달러에서 90달러로 조정됐으며, 이는 전쟁 전보다 30달러 높은 수준이다.
- 현재 페르시아만 내 하루 1천4백50만 배럴의 생산 손실로 4월 글로벌 재고는 하루 1천1백만~1천20만 배럴씩 급감하고 있다.
- 골드만삭스는 공급 충격이 지속될 경우 더 큰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. 해협 통행량이 거의 없어 유가는 2월 말 이후 50% 폭등했으며,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성장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.

기사

[뉴욕시]

Bloomberg: Air Taxis to Fly Between JFK Airport and Manhattan for 10 Days
JFK와 맨해튼 간에 에어 택시 시험 운항

- 에어 택시 Joby Aviation이 저소음·무탄소를 선보이며 JFK 국제공항과 맨해튼 구간에서 전기 에어택시 시범 비행을 계획 중이다.
- 이번 비행은 에어택시의 상용화를 앞당기려는 연방 프로그램의 일환이며, Joby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뉴욕, 텍사스, 플로리다에서 여객 운송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.
- Joby의 기체는 헬리콥터보다 100배 더 조용하며, 소음이 주변 소음에 묻혀 빠르게 사라지는 특성을 갖췄다.

기사

[미 중간 선거]

TheEconomist: Virginia’s redistricting may be the nail in Republicans’ coffin
민주당, 올해 11월 중간선거 해볼 만해...하원은 이겨

- The Economist의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2026년 미국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98%의 확률로 435석으로 구성된 하원 의석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최소 3석을 얻어낼 것이라고 예측한다.
- 또한, 민주당이 48%의 확률로 상원 의석을 장악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.
- 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, 투표 의향을 밝힌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약 53% 대 47%로 앞서고 있다.
- 전국 총득표율이 동률인 경우에도,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이 될 확률이 약 50 대 50 정도로 나온다.
- 상원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.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 100석 중 4석을 뒤집어야 하는데, 이는 2024년에 Donald Trump이 두 자릿수 격차로 승리한 주들이 대부분이라 어려운 일이다. 그러나 민주당, 노스캐롤라이나, 오하이오주, 텍사스주의 경우 공화당과 선전할 경우 가능할수 도 있다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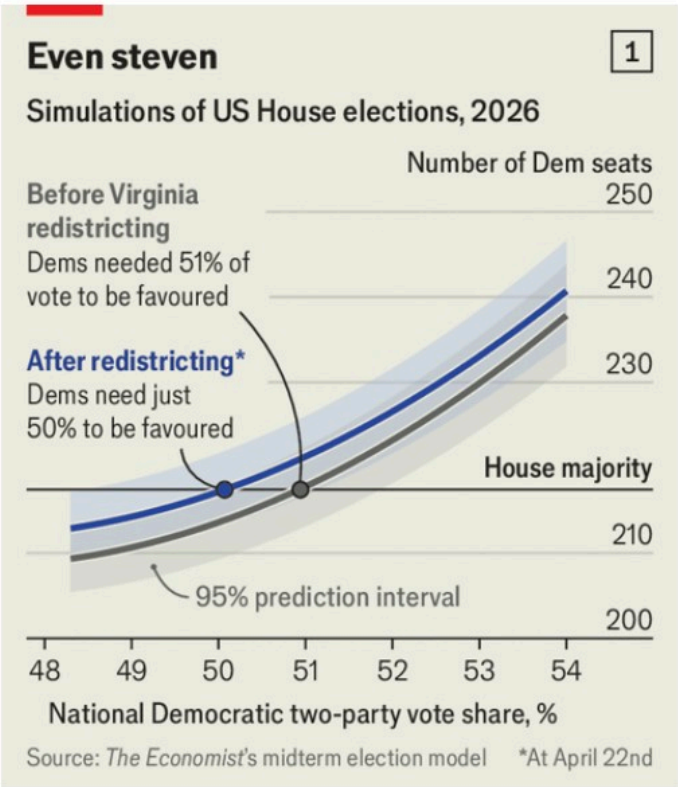


CHART: THE ECONOMIST

기사

[주택]

CNBC: More apartments, more deals: Why nearly 40% of landlords are offering concessions right now
주택 임대 시장은 임차인 위주로 바뀌고 있다

- 임차인 우위의 주택 임대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무료 월세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걸며 세입자 부담이 줄고 있다. 3월 미국 평균 임대료는 1,910달러로 전년 대비 1.8% 상승하며 2020년 이후 최저 성장 폭을 기록했다.
- 임대료 상승보다 소득 증가가 빨라지면서 가계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은 29.4%에서 26.5%로 낮아졌다. 현재 전체 매물의 약 40%가 공짜 렌트나 무료 주차 같은 혜택을 제공 중이다. 이는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하며 집주인 간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로 분석된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CNBCL United Airlines CEO confirms he approached American Airlines about merger
United 항공사, 아메리칸 항공에 합병 제의…거부당해

- United Airlines의 CEO인 Scott Kirby는 American Airlines에 합병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을 월요일 공식 확인했다.
- Kirby는 고객에게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해외 경쟁사에 맞설 거대 글로벌 항공사를 만들기 위해 합병을 타진했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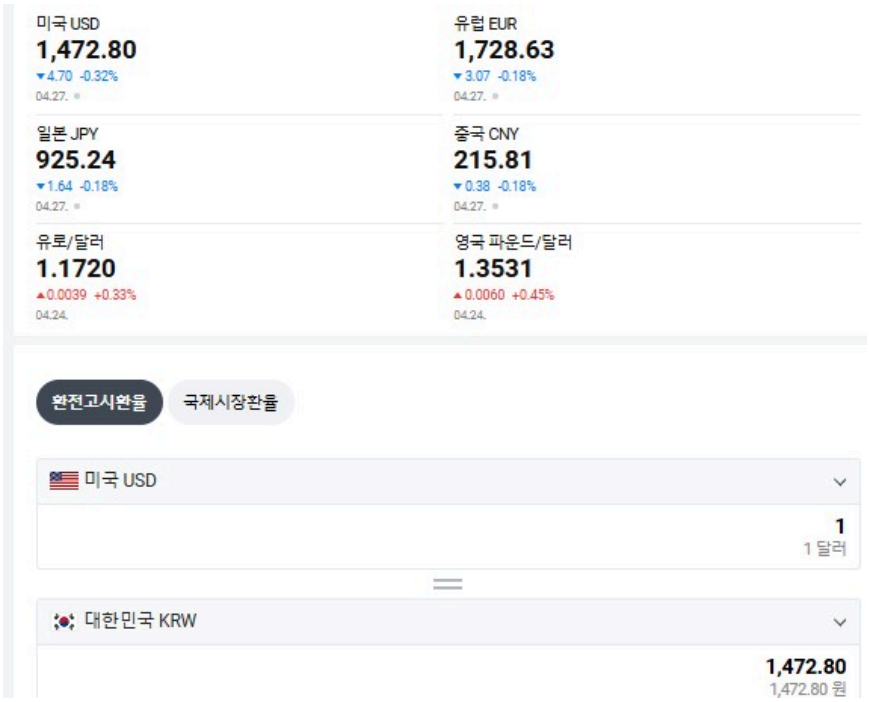
- 반면 American Airlines 의 CEO인 Robert Isom는 “해당 제안이 고객에게 불리하고 경쟁적이지 않다”라며 즉각 거부했다. Kirby는 올해 초 Trump 행정부에도 이 구상을 전달하며 합병 승인이 될 것으로 자신했으나, American 측이 이를 수용 불가는 하다고 해 합병 논의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.

기사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]



US 30	49,093.00	-136.5	-0.28%
US 500	7,155.00	-10.0	-0.14%
Dow Jones	49,100.89	-129.82	-0.26%
S&P 500	7,155.26	-9.82	-0.14%
Nasdaq	24,771.41	-65.19	-0.26%
S&P 500 VIX	18.70	-0.01	-0.05%
Dollar Index	98.217	-0.147	-0.15%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